

해외

양돈뉴스

-홍보부-

일본, 내년 3월부터 유해잔류물질 검사확대

일본은 내년 3월 1일부터 돼지고기내 유해잔류물질 검사항목을 현행 2개항목에서 5개항목으로 확대하는 등 잔류물질 조사방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립동물검역소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돼지고기 유해잔류물질 조사방안 입법예고안을 통해 현행 조사항목인 설파메타진의 잔류 허용량 0.05 ppm을 국제식품 규격인 0.1ppm으로 하향조정하는 대신 알벤다졸(0.1ppm), 치아벤다졸(0.1 ppm), 이소메타미디움(0.1ppm) 등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카바독스 잔류허용량 (0.005 ppm)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생산농가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검사항목인 알벤다졸이나 치아벤다졸, 이소메타미디움 등에 대한 잔류방지책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추가된 항목의 잔류물질들은 주로 구충제로 쓰이는 합성항균제이다.

일본, 돈육에 대한 SG발동 내년도도 이어질 전망

일본 정부의 돈육에 대한 관세긴급조치(SG)

가 내년도도 계속 발동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자들은 지난 7월 SG발동으로 돈육의 기준수입가격이 24%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및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계속 높은 수준을 기록, 발동기준 수입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SG 발동된 7월부터 월간 수입량이 1만톤 정도씩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했으나 8월, 9월 모두 높은 수준의 추이를 나타내면서 한도 초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누계 수입량이 이미 47만1천53톤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97년 축산정책 질병 방역대책 강화에 중점

일본은 내년도에 가축 질병방역대책 강화에 초점을 두고 축산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일본 농수성 축산국은 내년도 축산정책에 사용될 예산을 올해보다 5% 증가한 2,111억엔으로 책정하고 농수성에 예산책정을 요구했다.

일본 축산국은 내년도 중점 추진시책으로 가축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가축질병 방역체제 정비와 위생관리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축산국은 이밖에도 내년도에 ▲착실한 UR 관련대책

추진 ▲ 배합사료 가격안정제도 및 사료곡물 정비제도의 적절한 운용 ▲ 축산환경대책 확충강화 등을 중점 축산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 폐기어류 이용 DHA 함량높은 돼지고기 생산

일본 에히메현 축산시험장에서는 폐기처분되는 양식방어의 머리에서 짜낸 어유를 돼지 사료에 넣어 일반 돼지고기보다 DHA함량이 3-4배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등푸른 생선의 머리부분에 많은 DHA는 콜레스테롤을 억제시키고 학습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험에서는 출하전 7주 동안 체중 85kg일 때부터 사료에 어유를 첨가했는데, 하루 180cc(전체사료의 6%), 120cc(4%), 60cc(2%), 무첨가군으로 나누어 비교했다. 실험결과, 육질이나 기타 부문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어유첨가군의 DHA함유량이 일반육보다 3-4배나 높았으며, 어유첨가로 인한 비린내나 지방분의 황색화 현상은 없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어유첨가사료는 고부가가치 돼지고기 생산기술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죽은동물가공 가축사료 사용금지

미식품의약국(FDA)은 광우병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죽은 동물을 가공한 가축사료의 사용금지를 추진중이다. 과학자들은 양과 염소, 소 등 반추동물의 사체를 가공해 가축의 단백질원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광우병을 유발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FDA는 이같은 사료제조방식을 금지할 것을 제의하면서 연내에 이를 발효시키기 위해 일반 여론의 호응을 촉구하고 있다.

많은 학자와 관리들은 소해면양뇌증(BSE), 즉

광우병이 양의 사체가 함유된 단백질 보강사료를 통해 양에서 소로 감염된다고 믿고 있다.

미농무부는 미국이 지난 89년 영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기 때문에 미국에는 광우병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89년 죽은 양을 소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중지한 전국 정제사료협회(NRA)의 조치를 일부 회원들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FDA는 지적했다.

한편 미축산업자들은 죽은 동물을 동물에게 먹이는 것은 값싼 영양공급 방식이라고 옹호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료제조방식을 당장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BSE관련 자문위원인 전국보건연구소의 중추신경연구실장 클라렌스 깁스 박사는 “미국에서는 아직 BSE 발발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 병이 워낙 드물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금지조치가 전면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발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덴마크, 돼지수출 증가로 자국 도축업계 위기

광우병 파동 여파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해 덴마크 양돈업자들이 자국 도축업자들과의 계약을 어기면서까지 돼지를 수출하고 있어 도축업계의 피해가 늘고 있다. 덴마크 도축업계는 처음에는 이러한 수출증가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 도축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자 긴장하고 있다.

현재 예상으로는 96년 말까지 80만마리 이상의 돼지가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5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96년 도축량은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돼지가격급등세, 성탄절 이전 신기록치 달성할 듯

EU의 돼지고기 소비수요는 가을이 되면 증가하는데 금년에도 예외없이 이러한 수요증가를 반영하는 돼지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시장전문가들은 돼지가격이 성탄절 이전 소비절정기 동안 지육 kg당 1백60펜스 수준에 접근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EU 각국 언론의 광우병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EU 적육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육류업계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EU, 96년 돼지 생산감소, 가격상승 예상

EU 대부분의 국가에서 96년 4월에 시행된 돼지사육규모 조사에 따르면, 사육규모 특히 중축돈과 중량 50킬로그램 이하의 돼지 사육규모가 약간 감소해 94년 이후 나타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96년 남은 기간과 97년 1/4분기에도 역시 사육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소비를 꺼리며 대체육류를 찾고 있어 쇠고기 이외의 다른 육류의 수요가 얼마나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수개월 동안 돼지고기 생산실적은 육류수요의 변화에 따라 변할 것이며, 이러한 수요변화가 돼지고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지난 수개월 동안 돼지고기 가격은 상당폭 상승해 사료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양돈업계의 수익성이 상당히 호전되었다.

중국, 96년초의 돼지 사육두수 : 4억 4천 100만두로 전년대비 6% 증가

중국 최근의 축산동향 조사에 의하면 96년초의 돼지사육두수는 4억 4천 100만두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95년의 사료가격 상승으로 도태가 예상되었으나 동 조사에서는 번식모돈의 유보가 확실한 것으로 나타나 금후에도 돼지사육수의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95년 돼지고기 생산은 3천 400만톤으로 전년대비 13%가 증가하였다. 96년은 10% 증가한 3천 750만톤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양은 세계총생산의 거의 절반을 점유한다. 96년 돈육 수출은 20만톤 전후로 예측하고 있다.

브라질, 돼지고기 소비캠페인 전개

브라질의 양돈농가들과 육가공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돼지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전개중이다.

양돈농가들과 육가공회사들의 소비 캠페인은 현재 1인당 9,2kg인 돼지고기 소비를 15~17kg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 양돈관계자들은 현재 연간 15억달러인 예산을 향후 4년간 65%까지 늘리기를 원하고 있다. 브라질 양돈협회(ABCS)의 주니어 회장은 "브라질의 소비자들은 아직도 돼지고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돼지들이 비위생적인 환경하에서 음식찌꺼지를 먹고 사육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며 이번 소비캠페인을 전개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